

주일 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일시: 2022년 9월 11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 묵상기도/ 각자
- 기 원/ 인도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경배찬송/ 새36장(통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기 도/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막 1:14~15” (신약p. 53) / 가족중에서
- 말 씀/ “복음을 믿으라!”/ 인도자

마가복음은 “고난의 복음서”이라고도 부릅니다. 마가복음을 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유대-로마가 전쟁의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주후60-70년 사이에 모든 유대인들은 엄청난 재난을 당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끌려가 심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했으며, 끝내는 순교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시대는 부패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상처받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고 고통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막1:14~15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믿는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하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에게서 믿음이 일어나고 복음을 믿는 자리에게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살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고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예수님과 마주쳐야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2:60-62절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세 번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혼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 시점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을 회개의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마주쳐야 이루어집니다. 닭이 울었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닭이 울어도 예수님과 마주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베드로의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

이 어떠한지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를 마가복음1:15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은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이웃을 위해 사랑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 힘쓰면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안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과 위험과 불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마다 모임도 교인들도 감소되어 소형교회와 개척교회들은 교회를 이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복음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복음을 믿는 것 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되시길 기도합니다.

- 기 도 / 가족중에서
- 파송찬송 / 새449장(통377장) 예수따라 가면
- 주기도문 / 다같이

*광고:

1.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고, 피해복구도 속히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일상과 예배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도록 기도합니다.